

張維의 「續天問」 연구*

申斗煥**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天問」의 文學的 位相과 朝鮮의 受容樣相
3. 「續天問」의 形式과 內容 分析
4. 결론

1. 문제의 제기

세상에서 가장奇怪的 문학작품은 屈原이 지은 楚辭 「天問」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이한 문학 작품은 이를 모방한 谿谷 張維(1587~1638)의 「續天問」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굴원의 「天問」과 張維의 「續天問」, 이것은 고대로부터 있어온 하늘 이야기를 문학작품으로 승화 시킨 명품이다. 이것은 屈原이 지은 楚辭 「天問」으로부터 약 2000년간 떨어진 시간적 거리를 잇는 위대한 문학적 계승이다.

이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노력은 옛날부터 있어왔고, 동서고금의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고 있지만 아직도 주석이나 해석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다.

그 이유는 「天問」에 나오는 시어들이 대부분 초나라 샴머니즘에 바탕

* 이 논문은 2016년 1월 중국 남통대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을 둔 기이한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고, 대자연의 이치에 대한 의문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발상과 거대한 상상력으로 구사되어 있으며 고대의 동물들과 신화적인 인물들이 다양하게 형상화되고 있어 산해경이 없으면 그 이미지를 읽어내기가 곤란할 정도로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問』은 옛날부터 독자층들이 많았고, 수많은 비평이 쏟아졌으며 초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석이 수없이 달렸다. 楚辭 『天問』은 후대의 문학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에 있어서도 楚辭 『天問』은 신라시대에 이미 전래되었고, 최치원으로부터 고려의 이규보·이색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수용되다가 당과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 되면서 간신과 충신의 논쟁, 참소와 비방이 난무하고 임금을 둘러싼 집권과 축출의 권모술수 등, 혼란이 심해지던 조선 중기부터 집중적으로 수용되었다. 귀양과 초사는 상관관계가 깊다. 굴원의 초사는 그 고결한 인품과 억울한 누명에 대한 발분과 원망의 미학이 함의되어 있는 작품으로 이들의 우울한 심사를 풀어주기에 적합한 문학 장치였다. 초사는 조선의 선비정신으로 승화되어 참소를 입고 유배되는 선비들의 대중가요로 발전하였다.

굴원의 『天問』은 조선의 수많은 학자들이 탐독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수용한 흔적들이 각종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 그 수용양상은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고대 천문학개론으로써 천문학에 대한 인식의 기초로 인용되는 예이다. 『天問』은 우주를 이해하는 기초로써 선비들에게 권장되는 중요한 작품이었다. 이런 방향으로 조선의 지봉 이수광·성호 이익·오주 이규경·다산 정약용 등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들에게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다산은 『서경』을 해석하면서 천문에 대한 기록을 초사 『天問』과 대조해 가며 읽었던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하나는 굴원이 참소를 입고 억울하게 추방을 당한 것을 풀어내는 원망의 문학으로써 이해하는 것이다. 조선의 문인들은 굴원의 「天問」을 공자의 ‘興觀群怨’ 중 ‘怨望’의 테마로써 이해하였고, 신하로서 억울한 것을 歎息하고 悲嘆과 哀歎의 모델로써, 발분의 정서와 원망의 미학을 표현하는 사회미학의 전범으로써 이해하는 것이었다.

17세기 조선 문단의 거장으로 추앙받은 張維는 屈原의 楚辭 「天問」을 탐독하고 감동되는 바가 있어서 그 형식을 계승하고 새롭게 운자를 설정하여 「續天問」이란 작품을 지었다.

이 작품은 792자 184구 40장 92개의 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문학 사상 최초로 초사 「天問」의 형식을 모방한 작품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 문학에 끼친 초사의 영향을 고려할 때 초사 「天問」의 뒤를 이은 「續天問」은 귀한 작품이며 그 문학적 가치가 높다. 이 작품은 한국 한문 학사상 간과할 수 없는 특이한 지평을 점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창작배경과 그 중요성이 신두환에 의해 학계에 처음 소개된 이래¹⁾ 「續天問」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조선후기 문인의 楚辭 독서와 天問 수용 양상」이란 석사 학위 논문 한편이 이루어 졌다.²⁾ 이 논문은 초사 「天問」에 대한 조선 후기의 수용양상과 장유의 「續天問」의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續天問」만을 다룬 단독 논문은 없는 실정이다.

초사 「天問」에 대한 해석과 주석에 대한 우리 문인들의 노력은 각종 문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바, 그 양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1) 신두환,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권, 근역한문학회, 2010.

2) 이정은, 「조선후기 문인의 楚辭 독서와 天問 수용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

장유의 『續天問』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심화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續天問』을 형식과 내용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원 텍스트인 굴원의 『天問』과 비교하여 그 작품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 모방과 창조 속에 나타나는 신선한 구상과 향토적인 색채와 민족주체성을 살려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續天問』의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부각시켜 우리 한문학사의 영역과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2. 『天問』의 文學的 位相과 朝鮮의 受容樣相

(1) 『天問』 어떤 작품인가?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天問』은 기괴한 내용에 교묘한 기지가 엮이고 그러므로 그 精氣는 古代를 압도하고 그 문사는 현대에 절실하다. 사람을 놀라게 한 수사와 절묘한 艷麗성은 이에 병칭될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³⁾ 라고 비평했다.

淸나라 劉獻廷은 그의 『離騷經講錄』에서 “굴원의 『天問』은 진실로 천고만고의 기괴한 작품[天問, 眞可謂千古萬古至奇之作]”이라고 비평하였다.⁴⁾

중국 사전에서는 굴원의 초사 『天問』은 중국 고전 시단 상의 ‘한 타래의 기이한 꽃’이라고 하고 있다.⁵⁾

3) 劉勰, 『文心雕龍』, 『辯騷』.

4) 중국 바이두 사전 참조.

5) 중국 바이두 사전, 『天問』 조항. “『天問』是中國古典詩壇上的一朵奇葩” 부분 참조.

조선의 李德懋는 『靑莊館全書』에서 “三閭大夫 屈原의 『天問』은 글 중에 가장 험난하고 괴이함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고 또 그 상대도 없으며 宋玉의 招魂 등 저작은 『天問』과의 거리가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平易한 점이 있다.”⁶⁾라고 비평했다.

이 논문에서 굴원의 초사 『天問』을 ‘세계에서 가장 기괴한 문학작품’이라고 비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있는 것이다.

굴원의 『天問』은 형식면에서도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373구 1,564자로 구성되어 『離騷』 다음으로 방대한 장편이다. 작품의 형태는 4언을 기본적으로 1구로 하고 있지만 3언·5언·6언·7언도 가끔 있다. 그리고 2구를 하나의 의문절로 하는 장시의 격식으로 172개의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자는 규칙적으로 사용되어 반복되는 리듬을 위해 존재한다.

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우주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천문에 대한 의혹과 역사를 통해 길흉화복이 인물들에게 내리지는 과정들을 총합하여 초나라 사머니즘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그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문을 발분과 원망의 어조로 피력한 것이다.

이 작품은 반이 의문사라고 할 정도로 ‘何’·‘胡’·‘焉’·‘幾’·‘誰’·‘孰’·‘安’ 등 당시 의문사들이 총 동원되어 이루어진 의문문 작품이다. 形外之形·象外之象·言外之言으로 초월적 상상력을 의문에 집중시켰다. 그리고는 거론할 수 있는 우주의 모든 의문을 열거하여 모두 172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굴원은 이 거대한 하늘에 묻는 의문에 자기의 억울한 심사를 가탁해서 하소연하는 비유법은 문예적 성격이 깊은 것이다.

이 작품은 현실정치에 불만을 품고 哀歎의 어조로 쓰여진 發憤情緒의 위대한 작품이다. 굴원은 자기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참소가 판을

6)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52권, 『瑣雅』. “三閭大夫天問, 文中之至險極怪, 前無後無, 更無其對, 宋玉招魂等作, 稍接步武而却平易.”

치고 충성이 통하지 않는 비열한 조정으로 판단했다. 『天問』은 간신과 충신의 대비 속에 고결한 선비정신을 표출하고, 그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와 원망의 문학정신을 구현하려고 애쓴 위대한 의문문의 작품이다.

이런 점에서 楚辭 『天問』은 세상에서 가장 상상력이 넘치고 창의력 넘치는 고대 중국문학의 이체로써 그 연구의 여지가 넓은 걸작이라고 판단된다.

(2) 굴원은 『天問』을 왜 지었는가?

李德懋는 『次丘瓊山首尾吟』 시에서

사람이 곤경을 당할 경우 하늘을 부르짖으며 묻고	人於困境呼天問
아이가 태어날 때 땅에 떨어지면 울게 된다	兒向生時墮地啼 ⁷⁾

라고 하였고,

장유와 함께 조선 중기 한학사대가의 한 사람인 상촌 신희는 『賢達行』 시에서

하늘의 이치 아득해라 붙일 곳이 어디인고	此理茫茫焉所寓
굴원이 이 때문에 『天問』을 지었도다	屈原所以有天問 ⁸⁾

라고 하였고,

7)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1권, 『次丘瓊山首尾吟』.

8) 申欽, 『象村集』, 제8권, 『賢達行』.

金尙憲은

오직 인간 세상에는 뒤에 죽는 객이 있어서
하늘 향해 소리치며 화와 복에 대해 묻네

唯有人間後死客
獨叫蒼天問禍福⁹⁾

라고 하였고,

초사를 애호하였던 李德懋는

옛사람이 ‘六合(천지와 4방) 밖의 일은 그냥 두고論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매우 正大하였다. 그러나 豪傑스러운 사람은 한 사물이라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육합같이 큰 것은 유독 알아서는 옳지 못하다는 것인가.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하게 생각하여 의지하거나 가탁함 없는 생각이 광활한 데에 들게 되면 또한 發狂하기에 족하다. 屈原이 지은 楚辭 「天問」도 또한 發狂한 소리였다.¹⁰⁾

라고 하였다.

특히 孤山 李惟禕는 「輓金察訪」 만사에서

천문편 내용은 불공평하여 우는 것이다
세상의 화복은 밝히기가 몹시 어렵네

天問篇中鳴不平
世間禍福苦難明¹¹⁾

라고 하였다.

9) 金尙憲, 『淸陰集』, 제8권, 「李判書明漢挽詞」.

10)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52권, 「耳目口心書五」. “古人曰 六合之外, 存而不論, 言甚正大, 然豪傑之士, 恥一物之不知, 六合之大, 獨不可以知之乎. 凝然靜想, 無憑無托 思入廣漠, 亦足而發狂. 屈原之天問, 亦發狂之聲也.”

11) 李惟禕, 『孤山集』, 卷之三, 「輓金察訪」.

모든 것은 불공평하면 운다. 굴원도 불공평하여 운 것이었다. 이것은 韓愈의 『送孟東野序』의 ‘大凡物不得其平則鳴(대개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운다.)’에서 ‘鳴不平’을 따와서 굴원의 『天問』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시적 발상이 매우 흥미롭다. 한유의 『송맹동야서』의 기저에는 굴원의 『天問』편 속의 불평의 뜻이 함의되어 있었다. 한유는 이것을 바탕으로 문학은 不平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착안한 것인가? 굴원도 한 시대에 잘 우는 자였다. 문학은 잘 우는 것이고, 또 시대마다 잘 우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한유는 문학을 ‘善鳴’이라고 보았고, 율곡은 한유의 이 글을 바탕으로 문학을 ‘善鳴’이라고 했다. 불평하여 우는 것은 사회미학으로 문학을 반영론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천문』도 불평하여 우는 작품으로 파악했다.

梅泉 黃玿(1856~1910)은 『哭李海鶴文』 만사에서

궁액이 천지에 닥침에 분노가 깊어짐이여	曠扼腕於窮宙兮
이것은 굴원이 하늘에 물은 까닭이다	所以有屈子之問天 ¹²⁾

고 하였다.

매천 황현은 굴원이 『天問』을 지은 까닭을 궁액이 천지에 닥치고 분노가 깊어 하늘을 원망하는 데서 지어진 것으로 보았다. 굴원은 참소를 입고 추방을 당하여 산하를 방황하며 하늘을 향해 탄식하고 절규하였다. 조선 문인들은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에서 하늘을 원망하는 『天問』의 미의식을 인용하여 애도를 표하는 일이 많았다. 굴원의 『天問』은 輓詞에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天問』은 하늘의 불공평에 대해 발분과 원망의 어조로 지어진 일종의 發憤著作이다.

12) 黃玿, 『梅泉集』, 제7권, 『哭李海鶴文』.

(3) 왜 「天問」이란 제목인가?

굴원의 「天問」은 작품의 시작이 「天問曰」로 시작된다. 첫 두 글자를 따서 「天問」이라고 하였다. 지봉 이수광은 “굴원이 「天問」을 짓자 해석하는 자들이 하늘은 높아서 물을 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問天」이라 하지 않고 「天問」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유종원이 (「天問」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天對라고 짓고 對는 아래로부터 묻는 것을 위에서 응하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온당하지 못한 듯하다.”¹³⁾라고 하였다. 지봉 이수광은 王逸의 『楚辭章句』 「天問」에 관하여 “하늘은 지존하여 물어볼 수 없으므로 「天問」이라고 하였다.[天尊不可問, 故曰天問.]”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天問」이란 제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滄江 金澤榮은 「天問」의 제목에 대하여 “옛날에 굴원이 賦를 지어서 회포를 술회하여 하늘에 물은 것을 가지고 그 부의 이름을 천문이라고 하였다. 天을 먼저 말하고 問을 뒤에 말한 것은 천도가 아득하여 존엄하기 때문에 감히 욕되게 할 수가 없어서이다.”¹⁴⁾라고 하고 있다.

목은 이색은 「直說三篇」에서 초사 「天問」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늘에게 물을 수가 있는가. 楚辭 「天問」이 바로 그것이다. 漢을 지나 唐에 이르러 柳宗元이 죽을힘을 내어 이것에 답하였다. 董仲舒는 말하기를 “도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자다가 깬 듯 어렵 듯하나 그러나 오히려 “시퍼런 것이 하늘이다.” 하였으니 인간의 윤리와 물건의 법칙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이 모든 전체가 곧 하늘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늘은 곧 이치이다.’라고 말한 뒤에

13) 李睟光, 『芝峯類說』, 卷八, 「古文」. “屈原作天問, 釋者以爲天尊不可問. 故不言問天而曰天問, 然則柳子厚作天對, 對乃自下應上之辭, 似未穩.”

14) 金澤榮, 『韶澗堂集』, 卷五, 「遠思齋記」. “昔屈原作賦述懷, 以問于天, 而顧名其賦曰天問. 先言天後言問, 以天道之杳冥尊嚴, 有所不敢褻也.”

사람은 비로소 사람의 일이 어느 것이나 다 하늘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타고난 성품은 사람에게도 있고 물건에도 있다. 사람과 물건을 가리켜 “이것은 사람이다. 이것은 물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겉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찾아서 설명한다면 곧 사람에게 있는 것도 성품이고, 물건에게 있는 것도 성품이다. 다 같은 성품을 가졌으면 곧 다 같은 하늘임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신하가 섬기는 것을 임금이라 하며 임금이 부리는 것을 신하라 한다. 楚에서 나서 晋에서 등용될 수 있으니 이것은 국가를 가지고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隋에서는 아침하다가 唐에서는 충성을 하니 이것은 사람을 가지고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서로 잘 만나면 곧 물고기가 강에서 헤엄치며 새가 구름 위에서 나는 듯 될 것이며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아무리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이라도 齊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이 아마도 인연이 있는 것인 듯하다. 심한 경우는 원수처럼 보고 짐승처럼 보아 그 형편이 서로 견디지 못하고 그 뜻이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이니 아, 위태로운 일이다. 그 사이에 간사한 인물이 나타나서 휘두르게 되면 큰일을 망쳐버릴 것이니 아, 위태로운 일이다. 마음은 그 쓰이는 힘이 크다. 천지를 다스리고도 남는 힘이 있으며 털끝만한 것도 그 밖에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천지도 능히 그 역량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잘 쓴 사람은 二帝와 三王이며 이를 잘 간직한 이는 孔子·顔子·子思·孟子일 뿐이니 정치로 그것을 실행하였고 문장으로 그것을 저술하였다. 그리하여 그 쓰이는 길이 넓게 되었다. 그 숨겨져 있고 나타나지 못하는 것도 또한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나 달처럼 환한 것이며 귀신처럼 왕성한 것이니 그것도 나의 마음 가운데서 찾을 뿐이다. 좋은 말을 들으며 좋은 일을 보면 힘차게 우러나는 것은 마음의 단서이다. 그 단서를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은 敬과 義일뿐이다. 노력할지이다. 노력할지이다.¹⁵⁾

15) 李穡, 『牧隱集』, 제10권, 「直說三篇」. “天可問乎. 楚詞是已. 歷漢至唐, 柳子厚氏出死力, 以對焉. 仲舒氏曰 道之大原, 出於天. 於是乎寐若寤焉, 醉若醒焉. 然猶曰蒼蒼者天也, 而不知民彝物則之出於此, 而全體是天也. 於是乃曰 天則理也, 然後人始知人事之無非天矣. 夫性也在人物. 指人物而名之曰 人也物也, 是跡也. 求其所以然而辯之, 則在人者性也, 在物者亦性也. 同一性也, 則同一天也, 奚疑焉. 臣所事謂之君, 君所使謂之臣. 生于楚而用于晉, 是不可以國分也, 佞於隋而忠於唐, 是不可以人別也. 相得者 魚川泳而鳥雲飛矣, 相違者 瑟雖工而齊不好也. 君臣之

이것은 굴원의 「天問」에 대한 목은의 성리학적 비판이다. 초사 「天問」에 대해 유종원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天對」를 지었다. 이 이후 그 명칭에 대해서는 「天對」와 함께하는 논의가 많았다. 따라서 「天問」에 대한 연구는 「天對」를 포함하여 연구범위에 고려하여야 한다.

(4) 「天問」은 어떤 내용인가?

眉叟 許穆(1595~1682)은 屈原의 楚辭 「天問」을 읽고 그 독후감을 쓰기를 “屈原은 충언을 하다 추방되자 나라를 걱정하면서 「離騷」와 「天問」을 지었는데, 왕이 한번 깨우치기를 바란 것이다. 楚나라 懷王이 秦나라로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하자 頃襄王이 즉위하였다. 왕은 그가 자신을 원망한다 하여 강남으로 좌천시켰는데, 굴원은 강물에 몸을 던지면서도 후회가 없었다. 「天問」은 위로 天池와 대기를 지칭하는 馮翼, 해가 뜨는 곳인 陽谷과 해가 지는 곳인 大蒙, 九州 밖의 若木赤華, 幽冥에서 불을 밝혀주는 燭龍, 女岐의 九子, 伯強 疫神의 상서로운 기운인 惠氣, 태양의 수레에 오르는 羲和 · 女媧의 변신, 만아들을 죽이려한 高辛氏, 알을 보내 온 제비, 기이한 짐승인 魍堆 · 九鳥, 康回의 憑怒, 재난을 제거한 夷羿, 심장이 잘린 채 죽은 比干, 나라에 봉해진 간신 雷開, 璜臺의 十成, 惑婦와 妖夫로부터 壽夢 · 彭鏗 · 梅伯 · 申生에 이르기까지 신령스럽고 갑작스러운 변화와 요상, 요순의 聖哲, 忠臣과 孝子를 하나하나 열거하였는데, 자신의 忠感을 옛일에 가탁한 점은 「이소」와 같다.¹⁶⁾라고 하였다. 이것은

離會, 其有以哉. 甚者 如仇讎焉, 如羊牛焉, 其勢也不相持也, 其情也不相通也, 嗚呼. 其危哉. 奸雄一奮其間, 而大事去矣, 嗚呼. 其危哉. 心之用大矣. 經綸天地, 而有餘力, 無絲毫之或漏於其外也, 是天地亦不能包其量矣. 善用者, 二帝三王是已, 善保者, 孔顏思孟是已, 行之以政事, 述之以文章. 於是乎其用也費矣. 其隱而不可見者, 又非窈冥昏默之地也. 昭乎日月也, 盛乎鬼神也, 其亦求之方寸間而已矣. 聞善言見善行, 油然而生者, 心之端也. 持其端而不失焉者, 敬義而已. 其拳拳焉, 其拳拳焉.”

미수가 굴원이 「天問」을 꼼꼼히 읽고, 창작 배경과 그 작품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자신의 충성과 감회를 하늘에 묻는 것에 가탁한 문학작품으로 이해하였다.

(5) 「天問」에는 어떠한 문학적 가치와 어떤 미의식이 존재하는가?

초사 「天問」에는 순박의 풍격이 넘치는 문예미학이 존재한다.

달빛은 어떻게 얻어지며	夜光何德
이지러졌다가 또 커지는가?	死則又育
그 달의 원형이정은 어떤 것이며	厥利維何
토끼가 달의 배속에 있는 건가?	而顧菟在腹

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달 속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같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상상이 고대 때부터 있어왔다. 菟는 어떤 작품에는 ‘兔’로 되어 있다는 주석도 있다.¹⁷⁾

굴원의 「天問」을 모방한 쯤나라 傅玄의 「擬天問」에 “달 속에는 뭐가 있나? 약 방아 찹는 옥토끼가 있다.[月中何有, 白兔搗藥]”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문학에서 최초로 ‘달속의 토끼’ 이야기의 근원이 된다. 굴원의 「天問」 속에는 천진한 어린아이의 눈 같은 순박미 넘치는 상상력

16) 許穆, 『記言』 제1권 上篇, 「談評」, “屈原以忠見放, 憂思眷顧, 作離騷天問, 冀王之一悟也. 懷王入秦而不返, 頃襄王立. 以爲怨望, 遷之江南, 原沈江而不悔也. 天問上自天池 馮翼 陽谷 大蒙 九州之外 若木赤華 幽冥燭龍 女岐九子 伯強惠氣 羲登媧化 高辛竺子 玄鳥致貽 軒堆九鳥 康回憑怒 夷羿革孽 比干之沈 雷開之封 璜臺九成 惑婦妖夫, 以至壽夢彭鏗 梅伯申生, 歷舉神靈儻忽變化妖祥堯姚聖哲忠臣孝子, 自述其忠感寓前古者, 與離騷一也.”

17) 王逸, 『楚辭章句』, “言月中有菟, 何所食利, 居月之腹, 而顧菟乎? 菟, 一作兔.”

이 들어있다. 달의 배는 달의 중심이다. 달의 중심에 풀이 있다는 상상이나 달 속에 토끼가 있다는 순박미 넘치는 상상은 후대의 문학에 영향을 끼친 점이 혁혁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또羿의 妻인 姮娥가 불사약을 훔쳐 달로 달아나 두꺼비가 되었다는 전설도 초사 「天問」의 주석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초사는 구구절절이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고대 초나라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 초사 「天問」에 대한 순박의 미의식을 고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선현들이 「天問」 중에 가장 선호하는 동물은 燭龍이다. 屈原의 「天問」에

해는 어찌 이르지 않고
촉룡이 어찌 비추는가?

日安不到
燭龍何照

라고 하였다. 이 구에 대한 後漢때 王逸의 주석에 “하늘의 서북쪽에 해가 없는 암흑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용이 촛불을 입에 물고 비취 준다.[天之西北有幽冥無日之國，有龍銜燭而照之也]”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등장하는 촉룡은 입에 촛불을 물고 다니면서 어두운 곳을 비추어 주는 정겨운 동물이다. 촉룡은 魏지원이 인용한 이후 우리 문인들의 시구에 자주 인용되는 崑崙의 「天問」 속의 동물이다. 崑崙의 「天問」에는 이처럼 瑰奇하고 美麗한 표현력과 神奇怪異한 초나라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신화적인 형상들이 있어서 사람을 감동시킨다.

조선의 학자들은 「天問」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당시 하늘을 관찰하는 것은 정치의 중요 임무였으며 『주역』과 『태극도설』은 하늘을 이해하는 기본 논리였다. 여기에 초사 「天問」은 ‘天文’을 이해하는 기초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

宋翼弼의 「太極問」은 屈原의 「天問」을 본떠서 太極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형식으로 풀이한 글로 모두 81개의 항목이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朱子의 견해를 自序에서 밝히고 있다. 송익필은 “내가 屈子の 『天問』을 모방하여 『태극문』이라는 문제를 내어 후학의 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더니 그 답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이것이 우려되어 대충 答說을 만들어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¹⁸⁾라고 하였다. 『天問』은 고대의 천문학 개론서로 이해되고 있었다.

梅月堂 金時習은 『天問』을 읽고 『擬天問』을 지었다. 이것은 오언율시 3수로 지어진 것으로 그 물음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질문과 대답이었다.

첫 번째 무슨 까닭으로 하늘에 물었는가?	一問天何故
길흉화복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殃祥或不均
	- 『擬天問』 제1수 -

두 번째 무슨 까닭으로 하늘에 물었는가	再問天何故
태평성세가 오래지 않아 무너지기 때문이다.	雍熙不久衰
	- 『擬天問』 제2수 -

세 번째 무슨 까닭으로 하늘에 물었는가	三問天何故
세상 만물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多般物不齊 ¹⁹⁾
	- 『擬天問』 제3수 -

매월당 김시습은 초사를 애독한 문인으로 자기시대의 불만을 초사의 수용을 통해 풀어낸 흔적이 발견되는 시인이다. 그는 『天問』을 읽고 그 내용의 줄거리를 길흉화복이 고르지 않은 점, 태평성세가 오래가지 못하는 점, 만물이 평등하지 못한 점 세 가지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擬天問』

18) 宋翼弼, 『龜峯集』, 卷之三, 『太極問』. “余做屈子天問, 設太極問, 以觀後學所答如何. 後患答者多不合理, 略成答說以便看.”

19) 金時習, 『梅月堂集』, 卷之十四, 『擬天問』.

을 지어서 자기 시대를 반영하려고 애썼다.

認齋 崔峴도 「天問」이란 제목으로 5언 장시를 읊었다. 굴원의 「天問」을 내용으로 자신의 소견을 읊은 것이다.²⁰⁾

성호 이익은 다음과 같이 굴원의 「天問」에 대해 비평하고 있다.

屈原의 「天問」에 대한 柳子厚의 답변이 있으나 오히려 莊周의 기이하고 雄壯한 변론만 같지 못하다. 장주가 하늘의 운행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운행하는 것인가? 地球가 돌아가는 것인가? 해와 달이 달리기를 경쟁하는 것인가? 누가 이를 주재했으며 누가 이를 엮매었던가? 누가 일이 없어서 이것을 운행하게 했는가? 생각건대 機織하여 그만둘 수가 없었던가? 스스로 돌고 돌아 그칠 도리가 없었던가? 구름이 비가 되었던가? 비가 구름이 되었던가? 누가 이런 일을 베풀었던가? 누가 일이 없어서 이 교접하여 즐거운 일을 권했는가? 바람이 북쪽에서 일어나 혹은 서쪽 혹은 동쪽으로 불며 혹은 들개바람이 되어 곧장 위로 올라가니 누가 이를 불고 들이쉬는 것일까? 누가 일이 없어서 이를 떨쳐 일으켰는가?”라고 하였다.²¹⁾

성호 이익은 굴원의 「天問」을 자주 천문학적 기초로 인용하였다. 여기에서도 천문의 작품에 대하여 천문학적 상상력을 장자와 비교하여 특이한 비평을 하고 있다.

굴원의 「天問」은 후대에 미친 영향은 컸다. 먼저 晉나라 傅玄의 「擬天問」을 비롯하여 梁나라 江淹의 「遂古篇」, 唐의 楊炯에 의해 쓰여진 「渾天問」, 柳宗元에 의해 지어진 「天對」, 宋나라 楊萬里的 「天問天對解」, 明의 方孝孺에 의해 쓰여진 「雜問」, 王廷相에 의해 쓰여진 「答天問」, 清 李

20) 崔峴, 『認齋先生文集』, 卷之一, 「天問」.

21) 李灝, 『星湖僊說』, 卷之三, 「天問天對」. “屈子天問, 柳子厚對之, 猶未若莊周之奇辯雄深也. 其天運曰 天其運乎. 地其處乎. 日月其爭於所乎. 孰主張是, 孰綱維是. 孰居無事推以行是. 意者其有機織, 而不得已耶. 意者其運轉, 而不能自止耶. 雲者爲雨乎. 雨者爲雲乎. 孰隆施是. 孰居無事濫樂而勸是. 風起北方, 一西一東, 有上彷徨, 孰噓吸是. 孰居無事, 而披拂是.”

雯의 「天問」 등이 있다.

한국에서도 굴원의 초사 「天問」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신라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많은 문인들에게 애송되었으며 김시습의 「擬天問」, 장유의 「續天問」 등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상으로 굴원의 초사 천문의 위상과 조선 문인들의 초사 「天問」의 수용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3. 「續天問」의 形式과 內容 分析

조선 문단의 거장, 조선중기 한학 4대가 중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은 谿谷 張維가 살았던 시대는 극도로 혼란한 시대의 연속이었다. 그의 유년기와 소년기인 1592년에서 1598년까지는 임진왜란이 발발되어 전국토가 혼란에 빠졌고, 1612년에는 北人들의 권력독점 과정에서 대북파가 소북파를 제거하려고 일으킨 사건에 연루되어 金直哉의 옥사 때 축출 당하기도 했다. 그가 장성했던 40대인 1623년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국내는 혼란을 거듭하였고, 1627년 1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는 정묘호란이 일어났으며 1636년 1월부터 1637년 1월까지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張維는 이 혼란한 정국 속에서 관료생활을 하면서 비방과 축출을 받는 등 험난한 길을 걸었다. 張維 역시 굴원처럼 축출 당하기도 하였고 비방을 입기도 하였다. 張維의 본관은 德水, 字는 持國, 號는 谿谷, 시호는 文忠이다.

谿谷은 어려서부터 楚辭를 탐독하였고 성장하면서는 楚辭를 모방하여 시부를 짓기 시작하였다. 그의 시 전반에는 楚辭의 전고들이 앙금처럼 녹아서 그 아름다운 빛을 영롱하게 발하고 있다.²²⁾

22) 신두환,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권,

楚辭는 충신연군지정을 알게 하고 비분강개할 줄 알게 하며 원망을 할 줄 알게 한다. 공자의 시관인 ‘興觀群怨’의 ‘可以怨’에 해당되는 것이다.

谿谷은 어린 시절부터 충살하게 읽어온 楚辭의 영향으로 정의감과 비분강개하는 것과 忠臣戀君之情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비방을 입기도하고 축출되기도 했던 강개한 선비로 일관하였다. 그의 초사에 대한 탐독은 초사 「天問」을 읽고 감동할 정도로 박식하고 전문적이었다. 그의 초사 「天問」에 대한 애정은 드디어 「續天問」이란 작품을 짓기에 이르렀다.

굴원의 초사는 賦의 장르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소」를 「離騷賦」, 「천문」을 「天問賦」라고도 하였다. 張維는 「天問」을 이어 운을 맞추고 「續天問」을 창작하였다. 『계곡집』에서는 이 작품을 詞賦類로 분류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張維는 楚辭의 형식을 수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지어보고 싶은 나머지 굴원의 운자를 인용하여 새로운 楚辭를 지은 것이다.

이 작품은 한국 문학사상 최초로 나타나는 楚辭였다. 다만 초나라의 사머니즘으로 이해되던 우주만물의 주관자인 하늘 대신 공자의 『주역』 「계사전」, 주렴계의 「태극도설」, 성리학과 양명학 등 儒學을 바탕으로 인식된 하늘을 대신 적용하고, 초나라의 방언 대신 우리의 언어로 지었고, 초사의 신화 대신 우리의 민족 신화를 적용하고, 중국고대사의 억울하게 화를 당한 인물 대신 우리 역사에서 억울하게 화를 당한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하늘이 주관하는 善惡禍福의 불공평을 활용하여 자기시대의 불공평을 하소연하는 비유를 만들어낸 작품으로 이것은 또 다른 조선시대 楚辭였다. 이것은 초사의 형식과 운을 모방하여 초나라의 색채 대신 조선의 색채로 바꾼 조선의 초사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張維의 「續天問」에는 다음과 같은 序文이 붙어 있다.

근역한문학회, 2010, 참조.

옛날 屈原이 추방된 뒤에 山澤을 방황하면서 「天問」을 지었는데, 대개 하늘에 묻는 형식을 가택해 자기의 우울한 심사를 옛날에 대한 감회로 풀어 쓴 것이었다. 그 사실이 괴이하고 그이치가 지나친 점이 있었지만 그 글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그 뜻 또한 슬퍼할 만 했다. 그 때문에 先儒들도 괴이하고 지나치다 하여 배척하지는 않았었다. 내가 일찍이 읽어 보고는 그 문장을 좋아하게 되고 그 뜻을 완상하면서 慨然히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 단정히 앉아 만물들을 살펴볼수록 더욱 감동되는 점이 있기에 마침내 그 문체를 본떠 한 편의 작품을 지었다. 무릇 조화의 현묘하고 심오함과 만물의 이치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현상과 文章의 興喪, 化술의 邪正, 감추고 드러내는 禍福의 연고, 世態와 人心의 변화 등이 이 속에 얽히고 설켜 있었다. 이 작품 속에 의혹을 가질 만하고 걱정할 만한 것들은 모두 거론하여 물음으로 삼아서 詩句를 다듬고 韻을 달았다. 그러나 荒誕하고 神怪스러운 것과 屈子가 이미 물어보았던 것들은 하나도 언급한 것이 없다. 모두 40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개의 韻을 달았는데 「天問」을 본떠지었기 때문에 제목을 「續天問」이라고 하였다.²³⁾

장유는 楚辭 「天問」을 굴원이 추방되어 초나라 산하를 떠돌며 行吟澤畔하던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하늘에 묻는 형식을 통해 작자의 억울한 심사를 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작품의 모티브가 怨望과 哀歎에 있고, 장유가 假託이란 어휘를 사용하는 것에서 그 문학성을 유추할 수 있다.

張維는 楚辭 「天問」을 하늘의 물음에 가탁한 문학작품으로 인식했다. 그 괴이하고 이치에 지나친 상상을 張維는 文學적 상상력으로 이해했다.

23) 張維, 『谿谷集』 卷1, 「續天問 并序」. “昔者屈原既放, 仿徨山澤, 作爲天問之篇, 蓋託於問天, 以自紓其憂思感古之懷. 其事怪其理淫, 而其文特奇甚, 其志又可悲也. 故先儒亦不以其淫怪而斥之. 余嘗讀之, 喜其文而賞其志, 未嘗不慨然以歎. 端居覽物, 迺益有所感發, 遂效其體作一篇. 凡造化之玄奧, 物理之叢雜, 斯文之興喪, 道術之邪正, 幽明禍福之故, 世道人心之變, 參錯繆盭. 可惑而可憂者, 皆舉以爲問, 句而韻之. 而荒誕神怪, 與屈子之所已問者一無及焉. 總四十章, 而爲韻者九十有二, 以其效天問而作, 題曰續天問云.”

張維가 그 문장이 좋다고 한 것은 굴원의 하늘에 대한 원망의 의문형식과 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인 것이다. 그 때문에 張維에게는 읽을수록 감동적이었고 드디어 이 문체의 형식을 가지고 새로운 글을 지어보고 싶었던 것이었다.

張維는 楚辭 「天問」에서 거론되는 만물의 조화를 ‘玄奧’라고 파악하고 ‘玄奧’의 美로 인식했다. 그리고 문장의 미의식으로 興喪이란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상실감과 흥기됨이 동시에 느껴지는 悲壯美의 문학적 현상을 두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전체 어조는 원망적이고 비탄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물의 이치와 거론되는 인물, 길흉화복의 이치, 이율배반적으로 변해가는 세태를 바라보며 정도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張維는 초나라 사머니즘의 초월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으로 설파했다.

張維는 “荒誕하고 神怪스러운 점과 屈子が 이미 물어보았던 것들은 하나도 언급한 것이 없다.”라고 하여 이 작품의 형식은 유사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다만 「天問」의 형식을 본떠서 지었기에 「續天問」이라고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선현들의 글을 모방해서 지을 때 그 작품 앞에 ‘擬’자나 ‘續’자를 붙이고 시에서 운을 차운했을 때는 ‘次’를 붙여서 이 작품을 모방했다는 것을 밝힌다. 장유는 ‘續’자를 붙여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사실로 지었기 때문에 「續天問」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谿谷은 왜 「擬天問」이라 하지 않고 「續天問」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굴원은 자기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읊었지만 張維는 조선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지었다. 굴원은 굴원 당시의 원망을 하늘에 하소연하는 것이고, 張維는 자기시대 조정의 불합리한 원망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그래서 ‘續’은 단순히 본뜬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시대의 문제로 그 작품을 이어서 짓는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기원전 300년 전의 굴원이 지은 「天問」과 17세기 장유가 「天問」을 이

어 지은 작품은 약 2000여년 차이가 난다. 그동안 밝혀진 우주의 비밀과 천문학에 대한 학문적 발전은 굴원의 「天問」을 황탄하고 기괴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족하면서도 한편으로 고대 우주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보면서 감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張維는 「續天問」을 총 40장으로 구성했고, 92개의 운을 달았다고 자술했다. 어떻게 40장이 되고 어떻게 92운이 되는가?

「續天問」은 총 792자 184구이다. 짝수구마다 운을 달고 있으므로 184구는 92개의 운이 달려 있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4언을 한 구로 하고 있지만 5언, 6언으로 된 것도 간혹 있다. 기본으로 4구를 한 장으로 하고 있지만 6구, 8구를 한 장으로 하는 것도 더러 있다. 6구를 한 장으로 하고 있는 것은 6장이며 8구를 한 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 3장이다. 이렇게 운자를 바탕으로 내용별로 나눌 경우 40장이 된다. 「續天問」은 총 81개의 의문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은 형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진 바탕 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續天問」은 형식적으로 구절에 대한 구성과 운자의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張維가 사용한 운자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하려고 한다.

張維는 「天問」의 운자를 차운한 것은 아니었다. 초사의 운과 당대 이후의 운자는 체계가 다르다. 張維가 천문에서 운자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운자를 맞추어 넣은 것이다. 張維는 賦의 형식에 맞추어 시구를 다듬은 것 같다. 40장 92개의 운자의 형식을 바탕으로 장유의 「續天問」을 분석해 본다.

「續天問」 1장

문노라 아득한 하늘 태초의 조화

問冥冥元化

누가 주관하여 그 공을 이루었는가	孰尸其功
우주의 변화는	宇宙之變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는가	焉始焉終

첫 장은 상평성 ‘東’자 윤통의 ‘功’과 ‘終’을 사용하여 4구를 1장으로 다듬었다. 장유의 「續天問」은 굴원의 「天問」을 새로운 예술의 경지로 끌어 올렸다. 장유가 굴원의 「天問」을 읽고 그 내용을 본받아서 새로운 형식에 새로운 내용으로 「續天問」을 지은 것을 검증 할 수 있다. 장유의 「續天問」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것은 태초에 하늘은 어떻게 생겼으며 끝없이 돌고 도는 우주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가로 그 물음의 단초를 열었다. 굴원의 초사 「天問」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원문을 함께 제시한다.

天問 曰：
 遂古之初，誰傳道之？
 上下未形，何由考之？
 冥昭瞢暗，誰能極之？
 馮翼惟像，何以識之？
 明明暗暗，惟時何爲？
 陰陽三合，何本何化？
 圜則九重，孰營度之？
 惟茲何功，孰初作之？

하늘에 물어 말하기를

먼 옛날 태초에, 누가 그것을 전해 주었을까?
 천지가 형성되기 전에, 무엇으로 그것을 살폈을까?
 해와 달도 어둠에 휩싸인 혼돈 속에서, 누가 하늘을 至極하게 믿었을까?
 하늘의 은미한 움직임만을 상상하면서, 무엇으로써 하늘을 알았을까?

낮과 밤 음양의 명암, 어느 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음과 양 그리고 하늘 셋이 합하니, 그 바탕은 어떠하고 그 변화는 어떠했
 는가?
 둥근 하늘은 아홉 겹, 누가 그것을 다스리는가?
 이러한 엄청난 힘을, 누가 처음 이것을 만드셨는가?

굴원의 「天問」은 ‘天問曰’로 시작한다. 처음 시작하는 ‘天問’ 두 글자로 제목을 삼은 것이다. 4언으로 한 구를 삼고 두 구를 하나의 연으로 삼아 매 연마다 의문사가 하나씩 들어가는 형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형식의 의문문으로 작품이 시종일관되고 있다.

굴원의 「天問」은 4언 2구로써 1절을 삼는다. 이렇게 해서 보면 약 184여 절이라고 볼 수 있다. 장유는 이것을 축약하여 4언을 한 구로 4구를 1장으로 하는 기본 형식으로 하고 있다. 총 184구로 지었으니 서로의 관련성이 있는 형식인 듯하다.

굴원은 천지가 개벽하기 전의 카오스 상태에서 출발하여 우주의 신비에 대해 의문을 말한다. 상하 즉 천지가 붙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우주가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코스모스 단계로 가기 전에 대해 굴원은 우주의 이치에 대해 또 의문을 품는다. 어둠과 밝음, 밤과 낮의 구분도 안 되는데 누가 하늘을 말했는가? ‘冥昭’는 어둡고 밝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곧 天地 日月·晝夜·清濁 등의 이치를 가리키는 듯하다. ‘馮翼’은 형체가 없이 어렵קות한 상태로 카오스, 즉 天地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가리키며 ‘元氣’·‘陰陽之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기초로 張維의 「續天問」 1장을 분석해 보면 굴원의 「天問」과 일치하는 것은 ‘冥’자이다. 이것을 따와서 ‘冥冥’이란 용어를 만들어서 아득한 하늘을 표현했다. 그리고 ‘功’자를 따왔으며 의문사는 일치하지 않는다. 형식에서도 많은 부분이 다르다. ‘元化’라는 시어와 ‘宇宙’라는 천문학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된다. 굴원과 張維는 시기 적으로 약 2000여년 거리

에 있다. 2000년간의 天文學 발전은 이미 많은 것을 차이 나게 만들었고 새로운 용어들이 창출되어 천문학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바꾸어 놓았다. 성리학이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를 연결시킨 학문이다. 여기에서 굴원의 우주관과 장유의 우주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굴원의 『天問』에 대한 생각의 틀은 탁월한 상상으로 張維는 당시의 천문학의 사유방식에 영향을 끼친 것이 많다. 굴원은 그 당시 초나라 사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다분히 도교적인 색채로서 천문을 이해했지만 張維는 그 당시 팽배하던 성리학과 양명학 등 유가의 논리로 천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張維의 『續天問』 및 초사 수용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전 논문에서 밝혀진 것²⁴⁾이지만 여기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續天問』 2장

누가 명하고 누가 따라서	誰信誰誑
사계절이 만들어 지며	而四時成
누가 열고 누가 닫아	誰闔誰闢
밤과 낮이 행해지나	而晝夜行

이장의 운자는 ‘成’자와 ‘行’자로써, 下平聲 ‘庚’자 운통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운자를 기본으로 해서 굴원 『天問』의 내용을 함축시켜서 재창조하는 형식을 사용했다. 이 운자를 따라 만들어진 시어는 자연스럽기가 천의 무봉이다. 사계절을 누가 명령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사유하고 밤과 낮을 누가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아서 생겨나는 것으로 묻는 순박한 물음은 ‘天眞의 美’ 그 자체이며 굴원 『天問』의 그 초나라 고대의 순박한 미감을 되

24) 신두환,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권, 근역한문학회, 2010.

살리기에 충분하다.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작품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순박미가 넘치는 미감을 발견했다. 장유가 굴원의 『天問』을 읽고 감발된다. 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다. 마치 이상의 오감도 한 편을 읽고 명시라고 찬탄하는 어느 시인의 허황된 감상같이 이제 張維가 감발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 것 같다. 『續天問』,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이한 작품이 맞다.

제3장은 광활한 우주를 두고 太虛의 안과 밖,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가? 공중에 떠있는 것들은 어떻게 매달려 있는가? 우주와 대자연의 신비에 대한 끝없는 의문을 펼쳐나간다. 무극과 태극, 결국 그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은 어디인가? 결국은 주렴계의 『태극도설』과 『주역』 『계사전』에 바탕을 둔 우주의 신비, 그 시작을 無極에 두고 상상을 펼쳐 나간다. 성리학적 상상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4장은 ‘天·地·人’의 3요소가 혼합되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즉 太極의 元氣가 未分 상태에서 어떻게 무극이 태극으로 변화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쉰이고 나누어져서 陰陽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 장은 『太極圖說』에 대한 의문으로 다분히 성리학적이다.

제5장에서는 달에서 상상한 것으로 열림은 삶, 닫힘은 죽음, 어째서 천지의 거대한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가? 제6장에서는 우주의 변화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가? 서로 이어져 끝없이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천지의 始終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물었다. 제7장에서는 하늘의 청탁의 문제가 상하로 엉겨서 어찌하여 높은데도 기울어지지 않고 두터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것인가? 우주의 생성과 순환 그리고 그 속에 만물이 생겨나는 이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張維는 태극도설과 송대의 이학을 바탕으로 우주를 인식해 가는 과정을 의문문으로 형상화 시키고 있다.

「續天問」 8장

해와 달의 아름다움은	日月之麗
누가 진열해 놓았으며	孰陳列之
산하의 높고 낮음은	山河之奠
누가 솟고 파이게 만들었나	孰融結之

제8장은 운자를 상평성 ‘支’자 운통에서 ‘之’를 운자로 삼아서 시구를 창작했다. 먼저 운자를 지정해야 시구가 운자에 맞게 다듬어지는 것이다. 굴원의 「天問」에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 모두 ‘之’자로 운이 맞아 들어가지만 그 당시 고대 초사에는 운자가 당나라 이후에 정해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 장유는 굴원이 사용한 ‘之’자의 운자를 사용하여 창작에 들어간 것이다.

초사 「天問」에서

구주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九州安錯?
강과 골짜기는 어째서 깊은가?	川谷何洿?

라고 하였다. 굴원의 이 물음에 대해 장유는 흥미를 느끼고 다시 의문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日月과 山河에 대한 태초의 형상사유를 가지고 어린이의 눈처럼 순박한 어조로 의문을 펴가고 있다. 「天問」은 하늘과 우주현상에 대해 의문 나는 것은 거의 다 물었다. 「續天問」은 조선의 하늘 담론이었다.

「續天問」 9장

때지어 사는 생물들	林林之生
각기 천성을 보전하나니	各全其天

날짐승 길짐승 동물식물
작고 크고 뒹고 없이
그 누가 조종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가

蜚走動植
巨細紛綸
孰揉其機
而使之然

이 작품은 下平聲 ‘先’자 운통에서 ‘天’·‘綸’·‘然’을 운자로 삼아서 6구를 한 장으로 시구를 다듬고 있다. 이제 사고의 방향을 동물로 옮긴다. 굴원의 『天問』 속에 나오는 동물들은 신화적인 동물들로서 초나라 사머니즘에서 인용된 동물들이다.

이덕무는 正夫의 “『春秋』의 傳을 쓴 사람은 左丘明이 아니고 戰國 때의 이름 없는 左氏인 것이 분명하고, 『山海經』은 후세에 『天問』의 註疏를 모아서 만든 것이고, 伯益의 글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山海經』은 『天問』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²⁵⁾

朱熹는 『山海經』에 대해서 楚辭 『天問』을 『山海經』의 저자들이 도용했다고 했다. 홍응조는 『초사보주』에서 朱熹는 “『山海經』에는 여러 기이한 물건과 날짐승 들짐승 류가 기록되어 있고 ‘동향’을 많이 말하거나 혹은 ‘동수’를 말하며 의본은 그림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山海經』記諸異物飛走之類, 多云‘東向’, 或云‘東首’, 疑本依圖畫而述之.]”고 지적하였다.

陳振孫은 그의 『直齋書錄解題』에서 말하기를 “洪慶善이 楚辭를 보주하면서 『山海經』·『淮南子』를 인용하여 『天問』을 해석하고 있으나 朱晦翁이 말하기를 ‘고금에서 말하는 『天問』이란 모든 것이 원래 이 두 책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제 문의로써 이를 상고해 보았더니 이 두 책은 원래가 모두 『天問』을 따라서 해석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희가 보기에 『山海經』은 屈原의 楚辭 이후에 만들

25) 李德懋, 『靑莊館全書』, 제48권, 『耳目口心書一』. “正夫曰 傳春秋者, 非左丘明, 而別一戰國時無名之左氏也明矣. 山海經, 後世緝天問註疏, 爲之非伯益書者, 明矣.”

어졌기 때문에 先秦의 眞書가 아니라 僞書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위서라는 근거는 열거하지 않았다.²⁶⁾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이덕무는 초사 「天問」을 바탕으로 『山海經』이 저술되었다는 주희의 설을 말했다. 초사 「天問」은 기이한 물상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초월한 신화적인 작품이다.

제10장에서는 해의 운행과 사계절의 탄생에 대해 왜 머물지 않고 계속 해서 변화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제11장에서는 하늘 그 넓고 넓은 것을 360도로 측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펼쳤으며 제12장에서는 별에 주목하였다. 장유는 하늘에 떠있는 수 만개의 등불이 깜빡이듯 한다고 별을 묘사하고 있으며 수없이 명멸하는 별들에 대한 의혹과 상상에는 순박미가 넘쳐난다. 제13장에서는 빠르게 돌아가는 수 만개의 별자리와 태양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빠른 운행 속에서도 북극성은 자리를 변하지 않고 하늘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張維는 우주에 대한 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질문을 펼쳐나간다.

「續天問」 14장

어찌하여 동남쪽은 이지러지고	東南何缺
서북쪽은 어찌하여 치우쳤는가	西北何偏
무슨 이유인가 위대한 천지가	何覆載之大
온전치 못하게 된 것은	而不得其全

이 장은 下平聲 ‘先’자 운통에서 ‘偏’·‘全’을 운자로 삼고 굴원의 「天問」 “八柱何當, 東南何虧?(여덟 개의 기둥은 어찌 그리 당당하고, 동남은 어찌하여 기울었는가?)”에서 모티브를 얻어 지었다. ‘八柱’는 하늘에 인산이 있

26) 劉建國, 『先秦僞書辨正』.

는 데 그것을 柱라 한다. ‘八柱’는 대지를 떠받치고 있는 여덟 개의 기둥으로 鯤崙山 아래에 있다고 한다. 여덟 개의 기둥은 국가의 동량재인 신하를 비유하기도 한다. 또 『天問』에서

강회가 크게 노하니	康回馮怒
땅이 무슨 까닭으로 동쪽으로 기울었는가?	墜何故以東南傾?

라고 하였는데 張維는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鄭公墓碣銘』에서

강회가 화가 나서	康回憑怒
대지의 끈을 끊다	大挾坤維 ²⁷⁾

라고 하였다.

이것은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하러 한 일을 빗댄 것이었다. 康回는 共工의 이름이다. 대지의 끈은 인목대비를 비유한 말이다. 공공이 顓頊과 帝位를 다투다 실패하자 화김에 不周山을 들이받으니 하늘과 대지의 끈이 끊어지면서 땅이 동남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한다.²⁸⁾

張維는 당대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복선에 깔고서 굴원이 『天問』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듯이 장유도 그렇게 울부짖고 싶었다.

제15장에서는 조수에 대한 비밀을 밝힌다. 바닷가 조수 간만의 차이를 보고 ‘누가 그것을 들이쉬고 내뿜는가?’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의인법의 순박한 미의식이 함의되어 있다. 제16장의 ‘일식과 월식을 누가 먹어 들어서

27) 張維, 『谿谷先生集』, 제12권, 『嘉善大夫行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鄭公墓碣銘』.

28) 신두환,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권, 근역한문학회, 2010.

생기는가?’와 제17장의 ‘이들의 변화는 뒤에서 주관하는 배후자가 있을텐데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라는 어린아이 같은 순박한 물음 속에 나타나는 의인법은 고박미가 넘쳐난다. 장유의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의문의 상상들에서는 어린아이의 눈과 같은 천진성과 순박미가 넘쳐난다.

「續天問」 18장

道라 하고 器라 할 때	曰道曰器
하나도 되고 둘도 되네	爲一爲二
形而上과 形而下	上下之分
그 차이가 얼마일까	相去有幾

이 장은 仄聲·去聲 ‘寘’ 운동에서 ‘二’와 仄聲·上聲 ‘微’ 운동에서 ‘幾’를 운자로 삼고 ‘道’와 ‘器’의 문제에 접근했다. 정도전도 ‘載道之器’를 주장하고 문장에 도가 실려야 된다고 했다. 道와 器의 문제는 성리학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은 『周易』에서 나온 말로, 우주 생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陰陽의 변화 그 자체인 ‘理’와 그것이 形相으로 나타난 現象인 ‘氣’를 이르는 말로 형상을 ‘道’라하고 형이하를 ‘器’라고 보는 현상을 말한다. 장유는 운자 ‘二’를 살려 ‘爲一爲二’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성리학 적 접근이다. ‘理一分殊’, 즉 하나도 되었다가 둘도 되는 하나의 理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미친다는 이치이다. 理氣一元論과 理氣二元論의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학설들을 비판하며 주자학과 양명학 사이에서 유가의 학설을 종합해 보지만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장유는 굴원이 공자를 위시한 유가의 도에는 접근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추구해가는 의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물음을 던졌다. 이것은 신유학적 우주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제19장의 ‘하늘이 품부한 성품은 어찌서 사특한 사람은 많고 착한 사람은 적은가?’라는 질문은 세태에 대한 묘사로 자기 시대를 반영하는 복선이 깔려있기도 하다.

『續天問』 20장

舜禹의 밝은 그 덕
사망이 교화되었는데
어찌하여 부자 형제
유독 교화가 안 되었나

姚姒明德
上格旁播
何夫子昆弟
獨梗其化

이 장에서는 仄聲·去聲 ‘箇’자 운에서 ‘播’와 仄聲·上聲 ‘禡’자 운에서 ‘化’를 운자로 삼고, 굴원의 『天問』에 인용된 堯舜禹를 인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공자의 형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 공자는 출신 성분이 공씨 집안의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친 숙량홀의 재산을 이복형제·누이·조카들에게 물려주었고 공자는 하나도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자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어머니를 섬겨야 했다. 여기서는 이것을 두고 한 말인 듯하다. 장유는 굴원의 『天問』에는 언급하지 않는 공자를 형상화 한다. 이것은 굴원의 『天問』에서

舜閔在家，父何以鰥？
堯不姚告，二女何親？

라고 한 부분에서 상상된 것이다.

제21장에서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악행을 할 때이다. 그런데도 우임금이 구하를 소통시킬 때 하늘이 내린 홍수와 가뭄의 재앙은 어찌서 그런 것인가? 하늘의 불공평에 대하여 선비는 울어야 했다. 마음

의 주체자는 하늘이고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의 주체는 하늘이다. 굴원은 공자의 하늘은 크고 영성해 보여도 반드시 선악에 대해 구분하여 보답한다는 『논어』의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張維는 이것을 심화시켜 의문으로 확산시켰다. 이것은 유교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續天問』 22장

덕 있는 자는 대접 받아	畀德之豐
지위를 얻게끔 마련인데	必付其位
어찌하여 추로는 그렇게도 수고하고	何鄒魯之勤
끝내는 궁벽하게 죽고야 말았는가	而卒以窮死

이 장은 仄聲·去聲 ‘寘’자 운에서 ‘位’와 仄聲·上聲 ‘紙’자 운에서 ‘死’를 압운으로 하여 공자와 맹자의 문제에 접근했다. 덕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걸맞는 지위가 따른다. 공자와 맹자는 천하를 주유하며 덕치를 주장하고 폄으나 어째서 궁벽하게 죽었는가? 張維는 『天問』에 등장하지 않았던 유가적인 대표 인물들을 등장시켜 작품을 유교적으로 전개한다. 그리고 불공평한 하늘을 굴원의 『天問』과 같이 전개해 나간다.

『續天問』 23장

어찌하여 도적을 후하게 대접해서	何厚於盜
盜跖과 莊蹻은 흥애를 하고	蹠蹻寵樂
어찌하여 仁者는 원수로 여겨	何仇於仁
顏淵과 冉伯牛는 일찍 죽게 하였는가	顏冉夭厄

이 장은 ‘樂’·‘厄’을 운자로 삼고 굴원이 『天問』에서 하늘이 내리는 길흉화복이 불공평하다고 탄원하며 그 사례를 펼친다. 여기서는 盜蹠과 莊

躡같은 도적에게는 굴원 시대를 지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안희와 염백우를 등장시켜 유교적인 인물들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 장도 계속해서 하늘의 불공평을 원망조로 구성해 가고 있다.

『續天問』 24장

유교는 의리 밝히고	儒明義理
老子는 말 없는 현묘함 숭상하고	老尙玄默
서쪽의 불교는	西方之教
허무와 적멸을 내 세우네	泯然空寂
어째서 대도는 하나인데	何大道之一
말들 서로 대답되나	而群言相角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이며	孰眞孰僞
무엇이 순리이고 무엇이 역리인가	誰順誰逆

이 장은 仄聲·入聲 ‘職’자 운통에서 ‘默’, 仄聲·入聲 ‘錫’자 운통에서 ‘寂’, 仄聲·入聲 ‘覺’자 운통에서 ‘角’, 仄聲·入聲 ‘陌’자 운통에서 ‘逆’자를 운자로 삼고 8구로서 한 장을 삼았다. 여기서는 유불선이 같다는 ‘三敎一理論’을 주장한다. 유교의 義理論을 강조하며 이단과 구별하려는 뜻이 들어있다. 장유는 당대의 사상에 대해 열거하며 유교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묻는다. 이것은 파격과 역설의 미학이다.

제25장은 지구의 모양에 대해 우산 같다고도 하고 새알 같다고도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다. 우주의 형상을 새알에 비교하는 것에서는 흥미가 넘친다.

제26장은 도교, 장수의 비결에 대한 신선술의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제27장은 불교의 귀신, 윤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張維는 이단에 대한 의문을 밝히기 위해 하늘에게 묻는다.

「續天問」 28장

천도는 바르고 곧을 텐데도	何天道之正直
어찌하여 때때로 착오 일으켜	而有時而錯
음란한 자 꼭 화를 받지도 않고	淫未必禍
착한 자 꼭 복을 받지도 못하는가	善未必福

이 장에서는 仄聲·入聲 ‘藥’자 운통에서 ‘錯’자와, 仄聲·入聲 ‘屋’자 운통에서 ‘福’자를 운자로 삼고 길흉화복에 대한 하늘의 착오를 들어 원망의 어조로 나아가고 있다. 이 장의 주제는 작품 전체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으로 길흉화복의 내림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은 당대 사회에 대한 고발이다.

제29장에서는 제갈량을 거론하고, 제30장에서는 송나라 岳飛를 거론했다. 모두 초나라 때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다.

제31장에서는 공자와 맹자가 돌아간 뒤 1500여 년 동안 끊어졌던 유교를 거론하며 삼대 때에는 성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때에 닥쳐서는 왜 이렇게 성현이 나오지 않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펼친다. 그 이후 신유학이 펼쳐짐을 예고한다.

「續天問」 32장

朱熹는 博文約禮를 중지로 삼고	朱宗博約
陸象山은 간명함을 좋아했다네	陸蒸簡易
어찌하여 똑같이 孔孟을 스승 삼고	何同師孔孟
결론은 그토록 제각각 달랐는가	而旨歸殊致
근원은 같아도 흐름이 달랐으니	源同流異
그 누가 진정한 공자의 문하인가	孰眞洙泗

이 장에서는 仄聲·去聲 ‘寘’자 운통에서 ‘易’·‘致’·‘泗’자를 운자로 삼

고 6구를 한 장으로 삼는 형식을 취했다. 장유는 역사를 거슬러 의문 나는 것을 추려 드디어 신유학의 시대로 들어왔다. 張維는 조선에 팽배하던 주자학 일변도의 학문경향을 관망하면서 陸王學에도 눈길을 돌렸다. 張維는 성리학과 양명학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유학에 접근했다. 宋 淳熙 2년(1175) 육상산과 주희가 呂東萊의 주선으로 信州 鵝湖寺에서 만나 學風에 관해 3일 동안 토론했으나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는데, 박람한 뒤 요약하려고 한 주희는 육상산을 太簡 空疏하다고 비판하고, 우선 本心을 밝혀야 함을 강조한 육상산은 주희를 支離하다고 비판하였다. 공맹을 추구하는 주희와 육상산의 대립을 근원은 같고 지류가 다른 ‘同原異流’로 파악하고 있다. 이 장은 장유가 양명학을 공부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누가 공자의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물음은 주자학이 팽배하던 시절 양명학에 관심을 쏟았던 張維가 하늘을 향해 양명학에 무게를 두고 묻는 질문이었다.

『續天問』 33장에서는 소강절의 元會運世의 설을 등장시킨다. 원회운세 설이란 우주의 흥망성쇠에 관해 邵康節이 만들어 낸 이론인데, 1元은 12會, 1會는 30運, 1運은 12世로 되는 등 총 12만 9600년을 1주기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堯의 시대는 총 360運 가운데 180운에 속하고 그 속에서도 제9세에 속하며 會로 보면 즉 月午로서 陽이 가장 盛한 때인데 이 시기는 총 1만 8백 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張維의 우주관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송대 이학의 발달은 『天問』학을 재검립시키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이치를 접목시키려는 대자연의 운행에 대한 성리학적 이해를 읊고 있다. 송대 이학의 입장에서 『天問』의 형식을 가지고 형상화해 간다.

『續天問』 제34장에서는 周나라 文王이 죽은 뒤 그 영혼이 오르락내리락하며 上帝의 좌우에 있다는 『詩經』 『大雅 文王』 편을 지적하여 ‘불멸하

는 영혼은 과연 있는 것인가?[果有不亡者存]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續天問」 35장

檀君께서 나라를 처음 열고	檀而肇辟
箕子의 교화 처음 받은 곳	箕而肇教
어찌서 신성 한 옛 터전에	何神聖之墟
남은 풍속은 아득히 멀어졌는가?	而遺風眇眇

이 시의 형식은 仄聲·上聲 ‘篠’자 운통에서 ‘教’와 ‘眇’를 운자로 삼고 4구를 한 장으로 삼는 형식을 취했다. 내용은 단군과 기자를 등장시킨다. 거듭되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병자호란을 거면서 강조되던 민족에 대한 독창성은 여기에 미친다. 굴원이 여와를 중국 창조의 신화로 해서 등장시키듯이 장유는 단군을 등장시키고 기자를 등장시켜 민족주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張維는 우리의 사실을 가지고 향토적인 색채로 형상화시키려고 애썼다. 이 신성한 옛 터전에 남아있던 홍익인간·제세이화·기자의 홍범 팔조법금 등의 유풍은 아득히 멀어졌는가? 이것은 당대의 혼란을 복선에 깔고 있다.

「續天問」 36장

우뚝했던 圃隱 牧隱	卓卓圃牧
그때는 고려가 혼란할 때	值麗之痛
어찌 현인들 울연히 일어나도	何群賢蔚興
나라를 부지하지 못하게 했나	而國以不扶

이 시의 형식은 平聲·上平聲 ‘虞’자 운통에서 ‘痛’와 ‘扶’를 운자를 삼아 고려 말 성리학의 창도에 공이 큰 포은과 목은 같은 대학자들이 울연

히 일어났는데도 어찌하여 고려 나라를 망하게 하였는가? 하늘은 대답하라. 장유는 고려 말 우리 현인들을 일컬으면서 민족적인 색채로 형상화하고 있다.

『續天問』 제37장의 ‘하늘의 好惡에 대한 착란은 오만불손한 악한 자들을 비호하고 끈고 바른 이를 오히려 공격한다.’는 원망의 어조는 張維의 당대현실에 대한 정치의 불공평하고 사특한 것에 대한 사회 고발적 반영이다.

『續天問』 제38장

지초와 난초는 왜 시들고	芝蘭何瘁
잡풀은 왜 잘 크며	藜艾何遂
봉황은 왜 떠나고	鸞鳳何逝
올빼미만 왜 기승부리는가	鴟梟何厲

이 장에서는 仄聲·去聲 ‘寘’자 운통에서 ‘遂’자와 ‘霽’자 운통에서 ‘厲’자를 운자로 삼아 시 형식을 충족시키고 있다. 장유는 당대 선비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추키며 난초와 잡풀 봉황과 올빼미의 대조를 통해 군자는 점점 사라지고 탐관오리들만 기승을 부리는 당대 정치현실을 하늘에게 고발하고 있다. 인조반정 전후 격해지는 혼란한 정치 상황에 대한 고발로 당파로 인해 착한 선비들은 축출을 당하고 사특한 무리만 임금의 주위에 남아 나라가 극도로 혼란해 짐을 『天問』에 가탁하여 풍자하고 있다.

『續天問』 제 39장

어두워진 사람 마음	人心之蔽
어떻게 廓淸하며	曷其能廓
천리에 입각한 삶	天理之常

어떻게 회복하나

曷其能復

이 장에서는 仄聲·入聲 ‘藥’자 운통에서 ‘廓’자와 ‘屋’자 운통에서 ‘復’자를 운자로 삼고, 운자와 어울리는 시어를 다듬으려 예술정신에 골몰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운자를 의식하면 시속의 시어는 운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張維는 당파싸움으로 악해질 대로 악해진 관료들의 마음을 청렴결백하게 만들고, 천리에 순응하는 태평성세를 회복하려는 성리학적 이상국가 건설의 의지를 보인다. 훌륭한 학문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참소를 입고 조정에서 밀려난 억울한 선비들을 구하여 정치를 태평성세로 회복해 놓고자 하는 염원이 깔려있다.

「續天問」 제40장

뜻있는 선비는 시대의 상실감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하늘 향해 묻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는가

志士傷時
憂心慳慳
有問乎天
天胡無聞

이 장에서는 仄聲·去聲 ‘問’자 운통에서 ‘慳’자와 ‘聞’자를 운자로 삼고, 시 형식을 충족시키려고 애썼다. 이 작품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장유는 志士가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하늘에 묻는 것으로 이 작품을 마무리 하고 있다. 여기서 뜻있는 선비는 작자 자신일 수 있다. 우국애민을 바탕으로 깔고 올곧고 바른 충성심으로 하늘을 향해 묻는데 왜 하늘은 들어주지 않는가? 이 항변은 당대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과 부패하고 사투한 간신들이 판을 치는 정치에 대한 선비정신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장유의 「續天問」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續

天問」은 작품을 40장으로 나누고, 92개의 운자로 「천문」의 형식을 성공적으로 창작해내었다. 성정미학으로 보면 張維는 하늘에게 인간의 정감으로 접근하여 의문을 펼쳤다. 하늘이 품부한 인간의 마음에 선과 악이 존재하며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논리인데, 어째서 하늘은 선행과 악행에 대해 길흉화복을 내려주는 것이 이다지도 불공평한가?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여 탄식한다는 감정의 논리이다.

사회미학으로 보면, 불공평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참소를 입거나 귀양을 가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의 저열한 면이나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 울분을 토하는 것은 사회의 잘못에 대한 현실비판이다. 문학은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는 반영론적인 입장에서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다.

張維는 「續天問」의 앞부분은 성정미학으로 접근했고 뒷부분은 사회미학으로 접근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선비가 시대를 올바르게 잡으려 하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들어주지 않는가?’라는 물음으로 결말을 내리고 있다.

굴원의 「天問」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듯이 장유의 「續天問」도 후대에 미친 영향이 컸다. 崔錫鼎은 張維의 「續天問」을 읽고, 주립계의 「태극도설」을 바탕으로 「對續天問」을 지었다. 이것은 굴원의 「天問」에 대해 유종원이 「天對」를 지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창작의 의도를 밝히는 서문이 붙어 있다.

옛날 굴원이 「천문」을 지은 것은 그 근심과 걱정을 꺾이한 언사로써 풀어난 까닭이다. 유자후가 설을 지어서 그 어려운 것을 설파하고 이름을 ‘천대’라고 했다. 유자후는 대도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 마땅히 그 말이 경에 어그러지고 지나침으로 흐르는 것이다. 최근 張維는 굴원의 뜻을 연출하여 「속천문」을 지었다. 무릇 조화 유명의 까닭과 물리 인사의 변화를 모두 열거하여 물음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허황된 말에는 미침이 없었다. 대개 옛사람들이 둔사로 흐르는 것을 바로 잡고 대도의 중앙으로 그것을 돌려놓으

려고 한 것이다. 내가 읽고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곧 난해한 것만 있고 그 진실함을 취함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망령되이 눈술을 하였다. 감히 天對로써 제목을 삼지 않고 장유의 본래 제목에 대해 ‘對’자를 달았다. 유자후가 천문에다가 대를 한 것을 오류로 삼아서 병통으로 여기는 것은 또한 참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²⁹⁾

최석정은 장유의 「續天問」에 나오는 의문문 작품에 대답을 한다는 의미에서 「對續天問」이라고 하였다. 최석정의 「對續天問」은 張維의 에 대한 비평을 가지고 속천문의 형식에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근사록』과 『심경』이 많이 읽히면서 성리학의 입장에서 초사 「天問」에 대한 비평도 심화된다.

張維는 『근사록』과 『심경』에 치중하지 않았다. 최석정은 「태극도설」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입장에서 장유의 「續天問」 40장에 대해 주자학적 논리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장별로 일일이 대응하여 張維의 양명학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천문에 대한 비평이 깊어지는 것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張維의 「續天問」에 나타나는 운자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조된 시어에는 張維의 문학적 기지가 넘쳐난다. 「續天問」은 간단한 작품이 아니다. 이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초사 「天問」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먼저 바탕으로 깔아야 한다. 그리고 고대 천문학에 대한 박식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문학작품을 이해하려는 감수성의 촉각을 높이 세워야 한다. 이 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천문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비평은 많이 남아있다.

29) 崔錫鼎, 『明谷集』, 卷之七, 「對續天問」. “昔屈原作天問, 以抒其憂悲環怪之辭. 而柳子厚著說, 以破其難, 名曰天對. 子厚於大道, 未有所聞, 宜其言之悖于經而流于淫也. 近谿谷張子又演屈子之意, 作續天問. 凡造化幽明之故, 物理人事之變, 皆舉以爲問, 而淫怪之說亡及焉. 蓋欲矯昔人之流遁而歸之大中也. 余嘗讀而美之, 旣而惜其有所難而無所取衷, 妄爲之論述. 亦不敢輒以天對爲目, 就張子本題, 弁以對字. 以病子厚援天以對之爲謬且僭云.”

4. 결론

이상으로 谿谷 張維의 『續天問』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40장 전편을 살펴보았다. 그 형식은 賦에 속한다. 장유는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문학작품 『天問』을 읽고 감동한 나머지 초사를 모방하여 『續天問』을 지었다. 그는 굴원이 하늘에게 물었던 것은 배제하고 자기시대의 천문학을 바탕으로 물었다. 그리고 초나라 샤머니즘의 하늘 이야기 중에 황당한 부분을 배제하고 유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 속의 의문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재구성해 나갔다. 굴원의 『天問』과 張維의 『續天問』은 약 2000년간 떨어진 시간적 거리를 잇는 위대한 문학적 계승이다. 굴원의 『天問』은 373구 1,564자로 구성된 것으로 초사에서 『離騷』 다음으로 긴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반이 의문사라고 할 정도로 ‘何’·‘胡’·‘焉’·‘幾’·‘誰’·‘孰’·‘安’ 등 당시 의문사들이 총 동원되어 이루어진 의문문 작품이다. 모두 17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續天問』은 792자, 184구, 40장, 92운의 장편 詞賦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굴원의 『天問』은 하늘에 묻는 의문문 형식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심사를 가탁한 작품으로 그 초월적인 기이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치는 작품이다. 굴원의 『天問』은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내용은 대자연의 오묘한 이치·문화의 성쇠·길흉화복의 까닭·세상 인심의 변태 등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의혹과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열거하고, 만물의 주관자로서 불공평한 하늘을 원망할 만한 것들을 모두 들어서 만든 것이다. 이 작품은 發憤과 원망의 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續天問』은 92개의 운자를 사용해서 매구마다 『天問』의 내용을 대비시켜 놓았다. 張維는 자기의 학문토대 위에서 조선의 성리학과 양명학을 바탕으로 유교경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그 길흉화복에 대한 것과 우리의 신화와 역사적인 인물들을 바탕으로 민족적이

고 향토적인 색채로 작품을 재창조하였다.

굴원의 楚辭 「天問」은 선과 악·화와 복을 주관하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늘을 초나라 사머니즘을 바탕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비해 谿谷 張維의 「續天問」은 공자의 『周易』 「繫辭傳」과 송대의 「河圖洛書說」· 주렴계의 「太極圖說」· 성리학과 양명학 등의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서술되었다.

굴원의 楚辭 「天問」은 초나라에서 참소를 입고 억울한 상황을 하늘에 하소연 하는 모티브로 지어졌고, 谿谷 張維의 楚辭 「續天問」은 조선시대 인조반정을 전후하여 억울하게 당한 상황을 楚辭 「天問」의 형식을 통하여 지어졌다. 그런만큼 내용은 서로 다르다.

굴원의 楚辭 「天問」은 초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쓰여졌고 여와를 등장시켜 중국의 신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에 비해 谿谷 張維의 「續天問」은 단군을 등장시켜 우리 민족의 신화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에서 굴원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지만 내용은 다분히 창의적이고, 자주적이며, 민족적이다.

굴원의 「天問」은 초나라의 사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순박하고 기이한 초나라의 하늘 이야기로 傀隗美와 古澳美, 그리고 拙朴美가 넘치는 훌륭한 문학 작품이다. 張維의 「續天問」은 굴원의 「天問」을 이어서 굴원이 물었던 질문을 배제하고, 황당하고 기이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유교적 입장에서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이다.

張維의 「續天問」은 우주의 원리를 「태극도설」과 『주역』에 기초하여 성리학과 양명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문을 설정하고, 한국의 단군신화를 인용하고 유가적인 등장인물과 목은과 포은같은 충신을 등장시키는 등 국내의 정치 상황을 복선에 깔고 향토색 짙게 풀어내고 있다.

張維의 「續天問」은 약 2000년 전의 굴원의 천문학 개론을 심화시켜서 조선 천문학을 연결시켰고, 혼란한 정국에서 충성을 다하는 애국정신과

고결한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초사 『天問』을 재조명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으로 한국한문학상 한편의 이채로써 한문고전시가의 명품이었다. 앞으로 초사 『天問』에 대한 지평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

◆ 참고문헌

金尙憲, 『淸陰集』.

金澤榮, 『韶濩堂集』.

金時習, 『梅月堂集』.

李晬光, 『芝峯類說』.

李翼, 『星湖僊說』.

宋翼弼, 『龜峯集』.

申欽, 『象村集』.

王逸, 『楚辭章句』.

劉勰, 『文心彫龍』.

李德懋, 『靑莊館全書』.

李穡, 『牧隱集』.

張維, 『溪谷集』, 한국문집총간 92. 민족문화추진회.

崔錫鼎, 『明谷集』.

崔暉, 『訥齋先生文集』.

許穆, 『記言』.

黃玿, 『梅泉集』.

신두환, 「谿谷 張維의 漢詩에 나타난 楚辭 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31권, 근역한문학회, 2010.

이정은, 『조선 후기 문인의 楚辭 독서와 天問 수용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

투고일 2016. 4. 30 심사시작일 2016. 5. 29 심사완료일 2016. 6. 19

Abstract

A study on 「Sog-Cheonmun(續天問)」 of Jang-yu(張維).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Sog-Cheonmun(續天問)」 of Jang-yu(張維). The 「Sog-Cheonmun(續天問)」 was copying the most unusual work 屈原(Qu Yuan)'s Cho-sa(楚辭) 「Cheonmun(天問)」. 屈原(Qu Yuan)'s Cho-sa(楚辭) 「Cheonmun(天問)」 is the world's strangest work. Qu Yuan was labor under a sense of wrong against this ruling deportation. Qu Yuan put questions last time to Sky. So he wrote pieces that sympathized with Providence. This is what I call 「Cheonmun(天問)」. Some people say it is the root of modern astronomy.

He used his imagination and creativity to unlock the mystery of universe. Jang-yu(張維) Difference between 2000 with Qu Yuan. This is great literature on succession.

Jang-yu(張維 1587~1638) was read fluently and recite a Cho-sa(楚辭) in the original since childhood. Jang-yu(張維) is learn many thing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and composed different form's poem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Cheonmun(天問)」. Jang-yu(張維) is a great man of letters in The Choseon Dynasty period.

His 「Sog-Cheonmun(續天問)」 is full of revealing his Confucian ideas by imitation of Cho-sa(楚辭) 「Cheonmun(天問)」. His 「Sog-Cheonmun(續天問)」 is a distinctive romantic atmosphere by imitation of mentioned in Cho-sa(楚辭)' shamanism, Mythological animals and historically, a servant who was an injustice. Chang-yu(張維) and 屈原(Qu Yuan) are much alike in character. they are get driven out from the party of a councilor to the king. The incident colored his entire life. He is smart, capable and supremely confident in the poem world of Cho-sa(楚辭). Aesthetic consciousness of Jang-yu(張維)'s poem is the aesthetic consciousness in the 'Cho-sa(楚辭) since the creation of Qu Yuan's 「Cheonmun(天問)」. Jang-yu(張維)' 「Sog-Cheonmun(續天問)」 is our unique work of Chinese literature. This is a very interesting philosophical speculation.

His 『Sog-Cheonmun(續天問)』 is Imitation but imagination and creativity is Local color and ethnic identity and independent. This is his work can see the universe. He was a great poet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Keyword 『Cheonmun(天問)』, Cho-sa(楚辭), 屈原(Qu Yuan), Jang-yu(張維), 『Sog-Cheonmun(續天問)』.